

빈 탕(太虛)의 흰 존재, 솟나는 얼나

“그때는 우리가 우리 거문고를 바빌론 시냇가 언덕 위의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던 때다”

\_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중에서

김종길 | 미술평론가

옥정호의 <멀리뛰기>는 제자리에서 뒀 다섯 개의 포즈가 다섯 개의 사진으로 설치되어서 마치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뒀' 시간성을 갖는 것처럼 배치되었다. 언 듯 그것은 시간의 화살을 보여 주지만 실제로는 시간의 홀(우물)에 빠진 '갇힌 순환'의 알레고리를 상징한다. 그 시간 속에서 뛰는 그는 그 자신에 홀린 식민이다. 그런데 거울이 아니라 우물이다.

동아시아 우물 신화의 상징은 다른 존재태로의 변태(變態)에 있으나, 여기서는 갇혔다. 변태의 섬광은 얼빛이다. 옥정호는 고치 속 어둠 같은 우물 속에서 변태의 순환을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나 제자리다. 이 '제자리'의 모순에서 나는 지금 여기의 한국을 사유한다. 성장과 야만과 자본과 파괴의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에서는 완전 변태의 얼빛이 터질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흰 쫄쫄이'를 입고 '흰 존재'로의 탈아적 변신을 멈추지 않는다. 위장의 변신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생성체로서 변태를 위한 쉼 없는 생성의 우물[중묘지문(衆妙之門)]을 추궁하는 '그'는 누구인가?

솟나는 '제나'(ego)의 얼빛 '얼나'(眞我)

<홀륭한 자세>의 연작 사진은 제나의 세계에서 솟나는(솟구치는/솟아나는) 공중부양의 한 상황이다. 옥정호 작가와 그의 포즈 그리고 배경의 (한국)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편차는 강림과 부양과 (옥정호식) 퍼포먼스와 키치와 놀람 사이를 줄타기할 것이나, 그는 사뭇 진지하고 정치(精緻)하며 숭고하다.

그는 언제나 그의 작품(사진/영상)에서 '그(옥정호)'로써 등장했다. 그런데 작품 초기의 풍자적 연출에서 등장했던 '있는 그'와 달리 이 작품들에서는 '없이 있는 그'로 등장한다. '있는 그'의 현실 인식이 아수라 판타지의 모순과 부조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고, 쇼하고, 또 대중 신화의 예술가를 빗대어 농쳤다면, '없이 있는 그'의 작업들에서는 제나의 얼빛이 지극한 현실인 곳에서 솟나는, 세계의 우물터(바다/땅)이자 우주목(산 정상)이고 사슴 별(넙적 바위/아파트 옥상)이어서 그는 '흰 존재'로만 비친다.

그가 손바닥을 위로한 채 두 팔 벌려 뒀뛰는 솟나의 형국은 접신(接神: 신령의 지핍)과 엑스터시(忘我·脫我·恍惚)에의 갈구함이다. 샤먼은 오랜 뒀뛰기 춤의 어느 한순간에 '나' 없는 '얼빛'이 된다. 밝고 환한 얼빛은 흰 빛이다. 그 빛의 '흰 존재'는 한라산의 흰 사슴 못(白鹿潭)에서 옛보듯 치유의 신이요, '스스로 그러함'(自然)의 신령이다. 옥정호는 '있는' 그를 '없이' 지우는 자리에서, 어찌

면 그것은 희생의 한 상징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 '빈 탕'(太虛)에서 흰 존재로 변신·변태 하는 곳의 퍼포먼스를 펼쳤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그의 작품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무'(巫)의 한 순간에 멈춰있다. 얼빛의 말씀 한마디 없이 일순간에 정지해버린 듯한 저 포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할까?

제나의 세계는 사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수성(獸性)을 열망하는 번뇌의 사바세계다. 사람이 그 독(毒)에서 헤어 나올 수 없기에 참고 견딤(忍)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죽임의 작악(作惡)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사대강의 썩은 물이 바다로 쉼 없이 흘러 들어가니 그것이 작악이요, 국책사업의 이름으로 새만금을 개발하듯 해안 생태계를 파괴하니 그것이 작악이요, 온갖 인공자연의 도시주의를 유토피아로 선전하면서 자본 식민지로 전락시키니 그것이 작악이요, 삶의 질을 높인다고 신성한 신화소의 터를 관광지로 파헤치니 또한 작악이요, 아파트 공화국에 갇힌 삶을 조장하는 권력이 작악이다. 작악은 악을 짓는 것, 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악이 수성을 키우고, 그렇게 성장한 수성이 악을 드러낸다. 그것이 제나의 세계다.

통구스족의 샤먼들이 사슴뿔 관을 쓰고 춤을 추었듯이 그는 흰 짚쥘이를 입고 추었다. 한 옛적 사슴 샤먼의 춤이 옥정호에게로 와 뒀이 된 것이다. 아마도 그 춤의 사이에서 '옥정호'라는 제나는 제나의 옷을 벗고 얼빛이 되었을 터인데, 나는 그것의 상징이 '흰 짚쥘이'의 주체성/존재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없이 있는 그'라는 것은 제나의 옷을 벗은 상태의 얼빛이고, 그 얼빛의 한 상태로서만 흰 짚쥘이의 '흰 존재성'이 있는 것이다. 우물과 우주목과 사슴 별의 터는 얼빛의 섬광이 터지면서 수성의 제나가 신성(神性)의 일어나로 변태 하는 장소들이다. 흥미롭게도 옥정호는 한 옛적의 성지였을 그곳들을 지금 이곳의 지극한 현실로 등장시킴으로써 참나(眞我)인 일어나의 현존이 역설적으로 '현실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석가의 정토는 바로 이 사바세계에 있고 예수의 하늘나라는 바로 이 땅이다. 석가 부처의 불국토가 내가 선 이곳이요, 예수의 '하느님 나라'도 이곳에 세워질 것이다. 경전은 그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시카고미술관의 소장 작품 <그리스도의 승천>(1485)은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오르셨다'의 내용을 그렸다. 올리브 산 정상에 발자국을 남기고 승천하는 예수의 모습은 초기 무불상 시대의 불족(佛足)을 연상시킨다. 발자국은 '없이 계신 그'의 현존성이다. '그'는 늘(영원) 이곳에 '없이' 계신다. 이곳은 현실이다. 이곳은 제나의 세계다. 우리는 '그'와 교통 하기 위해 침례(浸禮)를 행한다. 단체널 비디오 <훌륭한 정신>은 그 침례의 과정을 마치 물고문의 상황으로 보여준다. 물에 들기 전과 그 후의 얼굴에서 우리는 승고에 찬 사람의 얼빛인지 아닌지를 의심한다. 또 옥정호는 러닝머신 위에서 삼보일배를 행하기도 한다. 걷기-절하기-미끄러지기를 반복하는 그의 수행적 태도는 승고를 향하고 있으나, 우스꽝스럽다.

그는 2015년에 수행한 이 일련의 작업들을 <Hamartia-과녁에서 벗어나다>로 명명했다. 하마르티아(Hamartia)는 몰락에 관한 서사에서 비롯한다. 그 몰락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과오, 자신의 약점, 자신의 비극적 결함이 결국 자신의 몰락을 야기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 비극에서 비롯된 이 개념의 원전은 탁월한 주인공의 '판단 착오'라는 비극성에서 출발한다. 연극에서 비극적

상황은 우연과 운명과 무지가 뒤섞인 어떤 필연의 결과로 이어진다. 자, 그렇다면 제나의 솟나는 춤이 곳곳에서 얼빛의 흰 존재로 변태 하는 이 '수행성'의 과녁은 무엇일까? 아니, 실제로 '그'는 흰 존재로 변태 하기는 했을까?

<요가 프로젝트>(2011~13)은 <Hamartia-과녁에서 벗어나다>의 이전이다. 변신술의 제나, 혹은 예술하기의 실천을 '빨jit'으로 보여 준 이 작업들에서 변태적 순환을 꿈꾸었던 한 개 제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요가는 제나의 존재들이 얼빛을 수행하는 동작들이다. 얼빛은 깨달음의 빛이어서 제나가 부처(얼나, 진리를 깨달은 자)로 변태 될 때 터진다. 옥정호는 샬러리맨이 되어서 빨jit 요가를 수행한다. 한 동작 한 동작의 요가 동작들은 정동(情動, affect)의 감응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다. 빨jit이 흥건하게 묻은 손발과 옷과 그 몸의 동세는 '쉬는 자세'에서 '결함'이 된다. 그 수행성에서 피워 올렸을 맑은 본성 따위는 애당초 없었던 것일까? 처염상정(處染常淨)은 빨jit에서 빨jit을 해도 빨jit에 물들지 않은 맑은 본성의 상징이다. 맑은 본성이 부처요, 얼나다.

세속은 제나의 바탈에 있는 얼나의 씨알을 검게 물들인다. 그의 작업은 그 검은 물의 흰 빛, 흰 존재의 얼나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이르렀다. 세속 현실에의 풍자는 '해학' 뒤에 숨은 비수와 전복의 뜻에서 커진다. 그는 그의 몸을 하나의 생성체로 두고 '작악'의 현실을 뒤흔드는 '굿-춤'을 추고 있다. 춤은 홀로 추는 춤이어서는 안 된다. '서로 주체들'의 춤을 몰고 가야 한다. 그래야 한 개 얼빛이 아닌, 솟나는 모든 만유(萬有)의 얼빛이 밝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없이 있는 그'의 다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솟나는 : 솟구치는, 솟아나는

한 옛적 : 고대(古代)

고래고래 : loud singing

얼빛 : 밝고 환한 정신의 빛

제나 : 제 것으로서의 나(ego)

얼나 : 참된 나

바탈 : 바탕

만유 : 우주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